

## 심리학 연구에서 개인구성심리학 연구법의 적용: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을 중심으로

김 소 희

유 금 란<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구성주의심리학의 한 지류인 George Kelly(1905~1966)의 개인구성심리학을 소개하고, 개인구성심리학의 대표적 연구방법인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렘그리드)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렘그리드 기법의 적용방법과 유용성, 한계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구성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만의 의미 체계를 만들고, 검증하고, 고치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간다고 본다. 이에 각 개인은 자신의 세계에 대한 구성개념을 생성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킨다. 이 이론을 통해 한 개인의 성격과 내적 세계, 개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렘그리드 기법은 구조화된 인터뷰기법으로, 개인구성체계를 탐색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방법론의 하나이며 구성개념 평가도구, 심리치료 기법으로도 사용된다. 이 기법은 구성개념의 내용에 있어서는 개별기술적인 정보를, 구조에 있어서는 양화할 수 있는 구조 측정치들을 제공해주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설계단계-실시단계-채점단계-해석단계로 실시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요소, 구성개념, 평정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Leach 등(2001) 연구의 그리드 사례를 활용하였다. 그리드 자료의 채점을 위해서 OpenRepGri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OpenRepGrid에서 산출되는 측정치와 지표를 표,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렘그리드 기법의 활용분야, 렘그리드 기법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 개인구성심리학, 질적 연구방법론, 구성주의심리학, OpenRepGrid

<sup>†</sup> 교신저자 : 유금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Tel : 02-2164-4270, E-mail : kyu@catholic.ac.kr

## 서론

20세기 말부터 심리학 및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상담 연구의 실증주의와 단일한 패러다임의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관찰자의 관점과 관찰의 대상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의미의 본질은 상대적이라는 점, 모든 현상은 맥락에 기초되어 있다는 점, 지식과 이해의 과정은 사회적, 귀납적, 해석적, 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exton, 1997). 이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이자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연구방법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관점들이 제기되고 있고(이장호, 김정옥, 1998; 연문희, 박남숙, 1998; 박성희, 2001),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상담심리학의 질적 연구는 2000년 이후에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서 2011년 사이의 질적 연구 중 합의적 질적 연구가 28.3%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김봉환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합의적 질적연구와 근거이론이 주로 활용되는 추세인 반면, 미국의 상담심리학 저널(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의 경우, 여러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고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합의적 질적 연구, 근거이론, 현상학, 사례연구). 김봉환 등(2012)은 국내 논문이 다른 질적 연구법보다 합의적 질적 분석, 근거이론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국내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개개인의 개별성보다는 양적연구에서 강조하는 합의와 이론을 끌어내려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양적연구에 익숙한 연구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만큼 자연과학적 방법론의 전통이 여전히 상담심리학 연구의 주된 패러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풍토에서 박성희(1996, 2001)는 실증적 패러다임과 대안적 패러다임의 상호공존, 더 나아가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상담심리학 연구도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소개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학과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 개인구성심리학(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George Kelly, 1905~1966)과 그 연구방법론인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Repertory Grid Method: Kelly, 1955)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인구성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이자 심리치료기법, 구성개념 평가도구인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이하 랩그리드 기법)은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증적 패러다임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질적연구방법이다. 양적연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개인의 내적 현실을 탐색하고, 오랜 분석과정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자료 요약으로 인한 정보 손실을 가져오는 질적연구의 한계를 랩그리드 기법이 보완할 수 있다(황선정, 2011).

Saül, Lopez-Gonzalez, Moreno-Polido(2012)는 랩그리드 관련 연구를 서지학적으로 개관(bibliometric review)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랩그리드 관련 문서(논문, 학위논문, 책 등)는 총 973편이었고 영국(64.85%)이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연구가 되는 국가였으며, 미국, 독일, 스페인 순으로 연구 성과가 많았다. 973편 중 저널에 게재된 논문은 468편, 그 중 심리학 분야는 262편이었

다. 이 연구 결과는 랩그리드와 개인구성심리학이 영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내 심리학 연구에서 개인구성심리학과 랩그리드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개인구성심리학은 구성주의심리학의 한 지류로, 경험에 대한 개인내적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표 1 참고), 현대의 상담·심리치료 분야에 적합한 인간관, 증상과 병리를 보는 관점, 상담관계를 보는 관점을 제공해준다. 개인구성심리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주의 인식론을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인식론은 현실을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인간을 강조한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 체계를 스스로 창조해 내는데,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접근이 구성주의 심리학이다(Raskin, 2002). 큰 의미에서 구성주의라는 용어는 심리학 뿐만 아니라 예술, 문학, 교육, 건축,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황선정, 2011). 여기서 ‘구성하다’(construe)의 어원은 라틴어 ‘con-

struere’인데, 이는 구조(structure)를 배열(arrange)하고 형태를 부여한다(form-give)는 의미를 담고 있다(Mahoney, 2003). 즉,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뜻이며,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구조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구성주의심리학에서 현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축되거나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된다(McNameee & Gergen, 2004).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상담은 ‘전문가’가 내담자의 ‘문제’를 정의내리고 ‘치료·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는 ‘내담자 자신’이라 본다. 상담자는 자신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알지 못한다(not knowing)’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치료자여야하는 입장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상담자는 치료적 대화나 질문을 통해 내담자와 공동 구성(co-construction) 과정을 함께 하며, 여기에 구성주의심리학의 포스트모던한 특성이 드러난다.

구성주의심리학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sup>1)</sup>, 그 의미와 지류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의 연구 동향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국외

1) 표 1. 구성주의심리학의 세 가지 지류: Raskin(2002)의 분류를 참고

유형	특징	대표학자
급진적 구성주의 (Radical Constructivism, RC)	- Maturana의 이론: 인지생물학자, 철학자인 Maturana가 신경생물학의 경험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론으로 만든 상대주의적 인식론. 외부실체가 아닌 구조(인지체계)가 결정한다. 생물은 closed system이며 지식, 인식은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것이다. - Glaserfeld의 이론: Piaget의 이론과 Darwin의 진화론을 참고한 이론.	Maturana (1987/2007) von Glaserfeld (1995a)
사회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onism, SC)	- 인식은 생각, 관념 또는 기억이 사람의 사회적 교류에서 생기며 언어를 매개로 형성된다. - 지식은 한 개인이 속한 집단의 언어활동에서 생겨난다.	Gergen (1992/2004)
개인구성심리학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PCP)	- 사람은 양극적 의미 차원, 즉, 구성개념을 개발하여 자신의 경험을 조직한다. - 서로 관계적으로 관련있는 구성개념은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하는데 쓰인다. 스스로 과학자가 되어 이 구성개념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수정 보완해 나간다. - 구성적 대안주의(PCP의 철학적 기초가정): 구성의 이전체계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사람은 의미의 새로운 차원을 창조해낼 수 있다.	George Kelly (1955)

연구의 경우, 구성주의심리학 저널(*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에는 2010년 이후 최근 까지 150여편의 구성주의 심리학 연구 논문이 다양한 주제와 대상으로 게재된 바 있다. 그 간 축적된 연구 성과는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 구성주의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중심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교육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가족치료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주의가 접목되고 있으나, 개인구성심리학을 활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정신분열증환자, 만성통증환자의 구성개념 연구(손정락, 1989, 2006), 인지복잡성과 정서복잡성 연구(양근원, 2005)가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2010년대 이후에야 발표되기 시작했다. 황선정의 자기애성 성격과 인지복잡성에 관한 연구(2011, 2014, 2015, 2016)가 대표적인 성과물이며, 이 외에도 암묵적 딜레마, 자기불일치로 인한 갈등 연구(정미라 2014; 이세미, 2015; 방은진, 2017), 구성체계의 구조 측정치인 인지복잡성에 대한 연구(허영주, 최한나, 2014) 등이 발표되었다. 국외의 연구 상황에 비하면, 국내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 분야의 구성주의 관련 연구는 활발하지 않으며, Kelly의 개인구성심리학도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들 국내 연구는 개인구성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랩그리드 기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랩그리드 기법을 통해 개인의 구성체계와 구조의 특성, 의미체계를 탐색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보통,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은 연구의 과학철학적 배경을 구성하는 연구논리(research logic)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기법(research technique) 두 가지를 포함한다(조용환, 1998a). 랩그리드 기법이 개인의 내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기법이라면, 개인구성심리학은 그의 과학철학적 배경이 되는 연구논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구성심리학과 랩그리드 기법을 소개하고, 상담심리학과 사회과학연구의 대안적 연구방법으로서 랩그리드 기법의 적용을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개인구성심리학의 주요 개념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랩그리드 기법의 실시방법과 측정치, 해석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연구에서 랩그리드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이 기법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논의할 것이다.

## 개인구성심리학<sup>2)</sup>

개인구성심리학(개인구성이론)의 핵심은 개인구성개념(personal construct)과 개인구성체계(personal construct system) 탐색에 있다. 개인구성개념은 개인 역사의 산물이자 삶의 경험 누적으로 형성된 ‘관점’인데, 삶의 사건을 구별하고 통합하고 예측하게 도와준다. 이 구성개념은 독특할 수도 있고 보편적일 수도 있으며, 삶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지에 따라 다양하다(Winter, 1992). 구성개념은 따로 떨어진 개체가 아니라, 수많은 구성개념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의미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를 개인구성체계

2) construct를 개인구념이라 번역하거나,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을 개인구성개념 심리학, 개인적 구성개념 심리학 등으로 번역한 문헌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nstruct를 구성개념으로,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를 개인구성심리학으로 번역하였다.

라 하는데,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theory)과 같다(Hardison & Neimeyer, 2007).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이론이자, 세상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이론을 고안하고, 검증하고, 계속 고쳐나가면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이 이론이 구성체계이다. 이는 각기 다른 삶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별성을 드러내 준다. 그러므로 구성개념과 구성체계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개인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개인의 내적 세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은 현상학적 이론과 흡사하다. 그러나 개인구성이론은 주관적 체험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결정하는 구조를 동시에 강조했고, 성격과 정의 보편성과 개인차를 모두 설명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결합이다(민경환, 2002).

개인구성이론에 기저하는 모델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 과학자이다’라는 관점이다. 과학자들이 관심있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이론적 구성개념을 사용하듯이 일반 사람들도 세상을 지각하고 이해하기 위해 구성개념을 사용한다고 본다. 과학자들이 구성개념을 공유하는 반면,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는 구성개념이 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구성개념이라 부른다(민경환, 2002).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암묵적 이론체계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는데, 그것이 잘 설계되었건 아니건 그것은 우리의 개인구성체계가 된다. 이 체계의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사건을 예상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질문을 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체계 자체를 정교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Fransella, Bell, & Bannister, 2004). 그런 이유에서, 이 체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함

의를 제공한다. Kelly(1955)에 의하면 구성개념과 구성체계의 탐색을 통해 ‘단어 너머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맥락’을 연구할 수 있게 되며, 내담자의 언어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사전이 주지 못하는 그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담자의 문제와 증상은 개인이 가지는 특성이자 개인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저마다 다른 구성체계로 인한 것이라 본다. 따라서 개인구성심리학을 통해 현상학적, 실존적, 인간중심적 접근을 구체화할 수 있다. 한 명의 내담자를 치료받을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개별기술적(idiographic) 심리에 대한 여정을 그와 함께 할 수 있다(Efran, McNamee, Warren & Raskin, 2014).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을 가지고 한 팀이 되어 작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상담자 자신의 ‘성찰’을 강조하였다(Fransella, 1995/2008).

개인구성이론은 ‘구성적 대안주의(constructive alternativism)’라 불리는 철학적 견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객관적 진실이나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는 자신이 해석하는(구성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많은 구성적 대안들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계는 달라지는 것이다(민경환, 2002). Kelly(1955)는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현재 해석이 모두 수정되거나 대체되는 대상이라 가정한다”고 하였다. 현재의 해석은 후에 변경되고 수정되어 다른 해석이 가능해져, 다른 대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가에 대한 일련의 개인구성개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킨다. 즉, 사람은 직접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성개념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생각, 감정은 그들의 구성개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개인의 구성개념은 언제든지 다른 대안으로 바뀔 수 있다(황선정, 2011). 이는 구성체계의 ‘재구성’을 통한 증상개선, 변화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구성개념과 구성체계에 대한 이론적 특성을 Kelly(1955)는 추론(corollary)으로 설명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추론은 이분법 추론, 조직화 추론, 편의범위 추론이다. 첫째, 구성개념은 양극적이다. 한 사람의 구성체계는 한정된 수의 이분법적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있다(이분법 추론). 이 양극성을 북극-남극으로 비유하자면, 한 맥락은 북쪽, 다른 맥락은 남쪽이 된다. 요소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것과는 같고, 어떤 것과는 다른, 구별을 통해 요소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성개념이 출현하게 된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Fransella et al., 2004). 예를 들어, 정직하다고 말할 때 ‘정직한’이라는 구성개념의 반대극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직한’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정직한’의 반대말은 그 사람만의 구성체계 내에서 찾아낼 수 있다. 누군가는 ‘정직한’의 반대말을 ‘거짓된’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직한’의 반대극은 ‘게으른’이라 답할지도 모른다. ‘정직한-거짓된, 정직한-게으른’과 같은 양극적인 구성개념의 쌍이 그 사람의 구성체계 내에 존재한다. 여기서 반대말은 사전에 기록된 반대말이 아닌, 응답자 자신의 내부에서 선택되는 자신만의 반대극이다. Kelly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유사성과 차이점에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구성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듯이, 위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구성체계가 드러나게 된다.

둘째, 구성개념은 위계적이다. 각 개인은 사건을 예측하기 쉽도록 구성체계를 특징적으로 진화시키는데, 구성개념들 간의 순서관계가 그것이다(조직화 추론).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에는 위계가 있고, 한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보다 상위에 존재하거나 하위에 존재하는 순서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송수단 - 자동차 - SUV - 레인지로버와 같은 형식논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심생각 - 주특징 - 하위특징 - 세부사항 순의 사고를 떠올리면 된다. 이러한 논리로 구성개념을 상위구성개념과 하위구성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며 구성개념을 탐색하고 도출하는 방식을 래더링 기법(Hinkle, 1965),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가며 구성개념을 도출하는 방식을 피라미딩 기법(Landfield, 1971)이라 한다. 혹은 래더링 업, 래더링 다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상위의 구성개념일수록 구성체계의 중심이라 보며, 이는 응답자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상위구성개념의 변화로 체계 전체가 바뀔 수도 있으며, 응답자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잘 변화하지 않으려는 특성이 있다(Feixas & Saül, 2004).

셋째, 구성개념의 적용범위는 한정적이다. 이를 편의범위(covenience range) 추론이라 부르는데, 한 구성개념은 사건의 한정된 범위를 예측하는 데에만 유용하다. 한 사람의 구성체계 내에 존재하는 한 구성개념이 모든 인물과 사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철수의 구성개념 ‘호감을 끄는’은 ‘여자친구’와 ‘이성친구’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아버지’와 ‘형’에게는 덜 해당될 수도 있다. 편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성개념은 철수의 구성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 편의범위를 간과함으로써 만들어진 문제는 의미론적 차이에 관

한 Brown(1958, Fransella et al., 2004)의 질문에 잘 나타나있다: “바위는 달콤한가? 시큼한가?”. ‘달콤한-시큼한’의 양극 구성개념은 ‘바위’라는 대상에는 적용불가능한 구성개념이다. Kelly(1955)는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일반화하게 되면 그 구성개념의 예측 효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간 이해를 위해 개인구성체계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면, 이 개인구성체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Kelly(1955)에 의하면, 한 사람의 경험이나 행동에 대한 조직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조직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이 하나뿐인 과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로 이루어진 도구를 사용하면 구성개념과 구성체계를 드러내어 분석할 수 있다. 이 평가도구들이 개인의 내러티브와 개인경험에 대한 구성을 탐색, 확인하고 자신의 고유한 구성체계와 위계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Hardison & Neimeyer, 2007). 개인구성심리학 평가도구로는 레퍼토리 그리드(Repertory Grid), 래더링/피라미딩(Laddering/Pyramiding), 자기성격묘사(Self-characterization),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생애사그리드(Biographical Grid)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구성체계를 드러내는 다양한 시도들 중 Kelly가 고안하여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1955)」에 소개한 랩그리드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랩그리드 기법은 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으로, 매우 혁신적인 연구 방법(Adams-Webber, 2006)이라 평가받고 있다. 이는 응답자가 보는 방식대로 그들의 세상을 보기 위한 시도이고, 그들의 상황과 관심을 이해하려는 시도(Fransella et al., 2004)

로서, 심리치료기법이자 연구방법론, 구성개념 평가도구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 기법은 1990년의 조사 결과, 1,000편 가량의 연구가 누적되었으며(Neimeyer, Baker & Neimeyer, 1990), 개인구성심리학 연구방법론에서는 95% 이상을 차지하는(Neimeyer, 1985b)를 차지하는 대표적 연구방법으로, ‘랩그리드는 사용자의 상상력 부족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기법(Fransella, 1977)’이라 할 정도로 그 주제와 설계가 다양하고 변형이 가능한 도구이다. 개인구성심리학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Adams-Webber, 1989b) 임상 및 상담심리학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자,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 분석뿐 아니라 양화된 지표로 제시가능한 도구이다. 이 랩그리드의 채점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수 개발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산출치를 통해 한 개인의 구성체계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

랩그리드 기법은 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으로, 인터뷰 설계 단계 - 실시 단계 - 채점 단계 - 해석 단계인 네 가지 기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단계에 따른 자세한 진행 방법은 황선정(2014)의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랩그리드의 기본단계 중, 실시(요소, 구성개념, 평정)-채점(원자료를 통해 산출해낼 수 있는 측정치)-해석(해석방법) 순으로 개념을 설명할 것이다. 기법 소개를 위해 황선정의 연구(2014), Fransella, Bell과 Bannister의 레퍼토리 그

리드 기법 매뉴얼 제2판(2004), Jankowicz의 Easy Guide to Repertory Grids(2003), 랩그리드를 위한 분석 프로그램인 OpenRepGrid(2016)을 참고하고 활용하였다. 또한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Leach, Freshwater, Aldridge와 Sunderland(2001)의 연구 사례인 Sarah<sup>3)</sup>의 그리드를 참고하였다(표 2). 구체적으로, Sarah의 치료전 그리드 원자료는 Leach 등(2001)의 연구에서 인용하였으며, 갈등분석 수치는 Bell(2004)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그 외 상관분석, 거리값분석, 구성개념의 주성분분석, 군집분석, 인지복잡성, 암묵적딜레마, Intensity는 본 연구에서 OpenRepGrid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Leach 등(2001)이 해석한 내용과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 랩그리드 실시

### 요소 element

어린 시절의 나, 현재 자기, 일반 여성, 일반 남성, 아버지, 파트너, 이상적 자기, 어머니, 아동기 성학대자

위에 제시된 9명의 인물은 표 2의 가로행에 기입된 목록이다. Leach 등(2001)은 연구를 위해 아동기 성학대 피해경험자(생존자)를 위한 집단치료를 진행하였고, 치료에 참여한 집단원들에게 치료 전, 치료 후, 3개월 후, 6개월

3) Sarah는 32세 여성으로, 아동기 성학대 피해경험으로 성관련 어려움과 우울문제로 집단치료를 의뢰되었다. 9세부터 오빠(당시 성인)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 현재는 세 아이의 어머니며, partner가 있다. 집단치료 전, 치료 직후, 3개월 후, 6개월 후 총 4회에 걸쳐 랩그리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치료 전 그리드만을 활용하였다.

후, 총 4회에 걸쳐 랩그리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Sarah는 이 집단원 중 한 명이었으며, Sarah의 구성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위의 인물을 그에게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에 맞게 일정 수의 요소를 참여자가 선정하게 한다. 플래시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각각에 참여자가 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입하도록 하고, 참여자가 인물들을 기입하면 그 순서대로 랩그리드 기록지에 면접자가 옮겨 적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황선정, 2014). 구성개념 도출을 위해 제시되는 이러한 인물들을 ‘요소’라 지칭한다.

랩그리드를 활용한 연구에서 요소는 주제, 연구대상, 연구설계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된다. Kelly는 요소 역할목록을 크게 여섯 가지(자기, 직업, 가치, 가족, 선호, 친밀감, 권위), 세부적으로 24개의 역할명으로 제안한 바 있다(Fransella et al., 2004). 연구의 주제에 따라 사람, 사건, 사물이 요소로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으며, 그렇게 선정된 요소의 묶음으로 비교, 대조를 통해 구성개념을 도출하게 한다. Sarah의 경우, 아동기 성학대 피해경험과 관련된 연구이므로, 성학대자 및 주요대상, 아동기의 자기가 요소로 포함되었다. 만약 연구주제가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응답자에게 ‘자기, 가족, 연인, 친구, 싫어하는 사람, 갈등대상’ 등이 요소로 제시될 수 있다. 슈퍼바이저의 전문성이 연구주제라면, ‘자신이 경험한 슈퍼바이저’가 요소로 포함될 것이다. 거식증이 연구주제이고, 체중, 신체 사이즈와 관련해서 자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기 위한 연구라면 ‘정상체중의 나, 과체중인 나, 지금의 나, 이상적 자기, 더 마른 나’ 등이 요소로 제공될 수 있다.<sup>4)</sup> Fransella 등(2004)는 랩그리드

4) 자기구성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참여자가 요소를



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연구 주제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 구성개념 construct

구성개념은 표 2의 좌측 세로열에 기입된 항목으로, Sarah의 구성체계를 드러내는 이분법적 단어쌍이다. 이 단어쌍 중 일부는 연구자가 제공하였고, 나머지는 요소 간 비교·대조를 통해 도출하였다. 구성개념이란, 요소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형용사들을 의미한다(황선정, 2014). Jankowicz(2003)는 구성개념을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 하였다. 즉, 위의 단어쌍들은 Sarah의 구성개념들이며, 이들이 모여 Sarah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자 의미체계인 구성체계가 된다. 그는 모든 그리드가 주제, 요소, 구성개념, 평정점수를 포함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개념이라고 보았다. 그리드는 궁극적으로는 구성개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구성체계 안에 존재하는 구성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드를 완성해낸다고 볼 수 있다.

Kelly(1955)는 이 구성개념에 대해 몇 가지로 정의한 바 있는데, 구성개념이란 ‘두 개나 그 이상의 것이 서로 비슷하고, 그래서 세 번째나 그 이상의 것들과는 다른 어떤 측면’이다. 이 정의는 그리드의 구성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Sarah의 사례처럼, 인터뷰 과정을 통해 아버지와 이상적 자기의 유사점을 질문받았다고 하자(질문 예: 000씨가 고른 이 두 사람은 성격의 중요한 부

---

선정하더라도, 현재 자기(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불일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요소와 유사성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에서 서로 비슷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아버지와 이상적 자기라는 두 요소 간의 비교를 통해 ‘믿을만한’이라는 구성개념 하나가 도출될 수 있다. ‘도출된다’는 것은 인터뷰 과정을 통해 응답자의 구성개념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뜻한다. 아버지-어머니와 같은 두 요소간의 비교·대조를 통해 구성개념을 도출하는 방법을 양자 비교법(dyadic), 아버지-어머니-이상적 자기와 같은 세 요소 중 비슷한 둘과 다른 하나를 골라내어 구성개념을 도출하는 방법을 삼자 비교법(triadic)이라 한다. 구성개념 역시 요소와 마찬가지로 응답자가 도출하는 방식이 있고,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따라 제공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공하는 방식보다 참여자로부터 도출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Fransella et al., 2004).

참여자는 이렇게 도출된 구성개념의 반대말도 생각해내야한다(질문 예: ‘믿을만한’과 반대되는 성격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적으로 반대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000씨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반대말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믿을만한’의 반대말을 ‘무책임한’이라 답했다고 하자. ‘믿을만한-무책임한’은 구성개념 한 쌍이 되고 이는 ‘출현극단-암묵극단(emergent pole-implicit pole)’이 된다. 요소와 구성개념의 적정 개수는 10개~20개로 정하라 권고하고 있다(Fransella et al., 2004). 참여자의 피로도 및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요소와 구성개념을 각각 12개씩으로 정하여 실시한 연구도 있다(황선정, 2016).

참여자의 고유한 구성개념이 도출되는 이 인터뷰 과정은 랩그리드 기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독특한 부분일 것이다. Viney(1998)는

표 2. Sarah의 치료 전 그리드 (Leach 등, 2001)

구성개념		요 소								
		어린 시절의 나	현재 자기	일반 여성	일반 남성	아버지	파트너	이상적 자기	어머니	성 학대자
1	7									
1. 자기주장이 강한	1.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2	7	4	2	3	5	3	1	1
2. 자신있는	2. 자신없는	1	7	3	2	2	4	2	1	1
3. 죄책감 느끼지 않는	3. 죄책감 느끼는	1	6	4	2	1	1	1	1	1
4. 폭력적인	4. 폭력적이지 않은	7	7	4	6	7	6	7	3	1
5. 무서운	5. 무섭지 않은	7	7	4	5	7	7	7	3	2
6. 믿을 수 없는	6. 믿음만한	7	7	6	5	7	7	7	3	1
7. 힘있는	7. 힘없는	7	5	4	2	3	5	2	1	1
8. 자만하는	8. 자만하지 않는	7	5	4	2	6	6	4	2	1
9. 독립적인	9. 의존적인	5	6	3	2	2	4	1	3	1
10. 혼란스럽게 하는	10. 혼란을 주지 않는	7	2	4	4	7	6	7	1	2
11. 죄있는	11. 죄없는	7	3	4	4	7	6	7	4	1
12. 차가운	12. 감정을 드러내는	7	3	5	4	7	7	6	2	6
13. 남성적인	13. 여성스런	7	7	5	1	1	2	5	2	1
14. 성에 관심있는	14. 성에 관심없는	7	5	3	1	1	1	2	7	1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공동구성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한 바 있다: 연구자의 질문 - 참여자의 응답 - 참여자의 대답에 대한 연구자의 숙고 - 숙고의 결과물을 참여자와 공유 - 참여자의 피드백에 따라 채택 혹은 기각. 이러한 방식의 연구방법은 구성주의가 사회과학 연구방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이를 통해 구성주의가 더 성찰적이고 더 반응적이며 더 윤리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Viney, 1992).

**평정 rating**

그리드는 행과 열로 평정점수가 정렬된 표, 즉, 격자이다. 각 구성개념을 각 요소에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 평정이다. 각 요소에 대해 구성개념이 가지는 값을 리커트

척도(보통 3점에서 11점의 급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너무 적은 급간은 구성개념의 평정이 단순해지고, 너무 많은 급간은 응답자가 판단하기 복잡해지므로(Fransella et al., 2004) 보통 5점, 7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다.

Sarah의 경우,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이 실시되었다. Sarah가 직접 자신의 모든 구성개념을 요소 전체에 따라 평정하면 Sarah의 그리드 매트릭스가 완성된다(표 2. 참고).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나’에 대해 구성개념 쌍에 따라 1점에서 7점으로 평정하게 된다. ‘어린 시절의 나’는 자기주장이 아주 강했다고 생각되면 1점을, 자기주장이 전혀 강하지 않았다 생각되면 7점을 표시한다. Sarah의 경우, ‘어린 시절의 나’는 다소 자기주장이 강했다고 생각하고 2점으로 평정하였다. Sarah는 요소 중 ‘성학대

자'에 대해 '폭력적인-폭력적이지 않은' 구성 개념을 1점으로 평정하였다. 이는 그가 성학 대자를 매우 폭력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Sarah가 7점으로 평정했다면, 이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 레퍼토리 그리드 채점

#### 채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현재 다양한 랩그리드 채점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IDCOR와 OpenRepGrid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Feixas와 Cornejo(2002)의 GRIDCOR는, 현재 4.0버전까지 출시되어 있다. 이차원 축 위에 행과 열이 서로 얼마나 멀고 가까운지 나타내는 대응분석(Correspondent), 요소 혹은 구성개념 간의 유사성에 따라 덴드로그램으로 제시하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요소간 거리, 구성개념간 거리, 요소-구성개념 간 거리를 계산하여 이들 관계를 분석하는 거리분석(Distance Analysis) 등으로 분석된다. 주성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극성을 지닌 구성개념을 도치시켜 분석하는 Focus기법이 포함되어 있어 랩그리드 매뉴얼이 추천하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현재 Windows 7.0 버전에서만 사용가능하다. GRIDCO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 2판(A Manual For Repertory Grid Technique; Fransella et al., 2004), 황선정(2014)의 논문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penRepGrid 프로그램으로 채점된 랩그리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Mark Heckmann (2016)에 의해 개발된 그리드 분석 프로그램으로, 맥, 윈도우즈, 리눅스 등 모든 환경에서 사용가능하다. GRIDSTAT,

GRIDCOR, IDIOGRID, Sci:vesco 등 기존의 그리드 프로그램에 저장된 자료를 이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penRepGrid에서 제공하는 분석에는 요소와 구성개념에 대한 기술통계 자료와 상관분석, 거리, 군집분석, 주성분분석을 활용한 통계 자료, 암묵적 딜레마·PVAF(Percentage of Variance Analysis First Factor)·Intensity·상관과 거리에 기초한 갈등 분석 등이 있다. OpenRepGrid는 랩그리드 자료 채점과 분석을 위한 무료의 오픈소스 도구로, 통계패키지 R<sup>5)</sup>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 측정 패러다임

채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해낸 대표적인 측정치는 표 3에서 참고할 수 있다. 연구 주제, 연구설계에 맞는 측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Sarah의 그리드를 해석하기 위한 상관분석, 거리값, 주성분분석, 군집분석, 지표(index)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 외의 자세한 측정치들은 OpenRepGrid에서 'leach2001a' 자료를 불러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Leach 등(2001)의 논문에 여러 유형의 분석이 소개되어 있다.

표 3의 측정치와 같이, 랩그리드 기법은 단일 사례에서 얻은 자료로 많은 유형의 집단 통계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ransella et al., 2004). 그리드에서 산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측정치를 연구주제에 맞게 선택해서 해석하면 된다. Jankowicz(2003)는 그리드에서 분석되는 것은 '의미meaning'인데, 이 의미는 단

5) SPSS, SAS와 같은 통계 패키지이다. 다양한 통계 분석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환경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의 통계분석이 가능하다.

표 3. 채점프로그램으로 산출되는 그리드 측정치

측정치	세부내용	참고사항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왜곡도, 첨도 등	그리드 평정값의 기술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상관값	요소간 상관관계,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파악 가능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 켄달의 순위 상관계수,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선택해서 산출 가능하다. 상관값에 따라, 참여자가 비슷하게 구성하는 요소와 구성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RMS	구성개념간 상관계수의 평균값의 제곱근(실효값) $x_s = \sqrt{\frac{1}{n}(x_1^2 + x_2^2 + \dots + x_n^2)}$	상관부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상관표를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한 구성개념의 다른 전체 구성개념과의 평균 관계를 반영한다.
Somers' D	예측성을 측정하는 수치	상관값이 대칭적 수치라면, 이는 비대칭 수치다. 수치가 높을수록 예측성이 높다.
거리값	유클리디언, 맨하탄(시티-블록) 선택 가능	요소의 유사성 측정치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자기-이상적 자기의 거리값은 자존감 측정치로 쓰인다.
주성분분석	평정 패턴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분석방법	방대한 자료를 비슷한 패턴거리 성분으로 묶어 더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자료를 축소시킴. biplot으로 제시가능하다.
군집분석	구성체계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	요소들 혹은 구성개념들 간의 유사성과 상호영향을 tree(dendrogram)의 배열로 제시한다.
인지복잡성	PVAFF(Percentage of Variance Analysis First Factor): 단일 성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량값	PVAFF값이 높을수록 인지복잡성이 낮다.
암묵적 딜레마	인지적 갈등 중 하나. Percentage of Implicative Dilemmas(PID) : d= 딜레마 수, n= 그리드의 구성개념 수 $PID = \frac{d}{\frac{n!}{2[(n-2)!]}} \times 100$	증상개선을 원하지만 숨겨진 구성개념 때문에 변화할 수 없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index	갈등분석 잠재적 갈등수= NE×NC×(NC-1)/2 NE=요소개수, NC=구성개념개수 잠재적 갈등수와 실제 갈등수치로 전체그리드의 갈등 %로 산출, 요소와 구성개념 별 갈등수치 산출 가능.	요소 하나와 두 개의 구성개념간 상관이나 거리가 '삼각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를 말함. 갈등, 비일관성이나 모순으로 지적하기도 한다(Bell, 2004). 갈등수치의 variation은 Cramer's V값으로 그리드간 비교가 가능
Intensity	구성체계 구조에 대한 측정치	구성체계의 조밀함과 느슨함 혹은 핵심구성개념과 주변구성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Extremity	극단 평정 빈도 $\frac{1 \text{ 또는 } 7 \text{ 을 평정한 빈도}}{\text{전체 구성개념 쌍의 수}} \times \frac{100}{\text{전체 구성개념 쌍의 수}}$	OpenRepGrid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 측정치이나, GRIDCOR 등 많은 프로그램이 이 수치를 제공한다.

\* OpenRepGrid(2016), Fransella et al. (2004), 황선정(2014), Feixas & Saúl(2004), Jankowicz(2003), Bell(2004) 참고.

어와 숫자 둘 다를 통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필요하고, 이 단어에 관해 요소의 특징을 고 구성개념을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 단어가 려하려면 숫자가 필요하다. 즉, 랩그리드는 이

들의 혼합이다.

( $r=0.87$ ). 이는 Sarah가 자신의 아버지와 파트너를 가장 유사하게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측정치 분석방법**

**상관분석.** 표 4에 제시된 대로, 요소 중 Sarah의 아버지와 자신의 파트너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다( $r=0.89$ ). 이상적 자기와 아버지가 그 다음으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 간 거리값 분석.** 거리값은 요소의 유사성 측정치로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요소 간 거리값을 표 5에 제시하였다. 높은

표 4. Sarah의 그리드 요소 간 상관 수치

	1	2	3	4	5	6	7	8	9
어린 시절의 나	1	0.16	0.34	-0.05	0.52	0.53	0.59	-0.15	-0.43
현재 자기	2		0.08	-0.41	-0.18	0.09	-0.08	-0.50	-0.75
일반 여성	3			0.29	0.44	0.41	0.59	-0.20	0.06
일반 남성	4				0.65	0.41	0.59	0.40	0.59
아버지	5					<b>0.89</b>	<b>0.87</b>	-0.10	0.06
파트너	6						0.71	-0.38	-0.15
이상적 자기	7							-0.04	0.01
어머니	8								0.59
성학대자	9								

\* OpenRepGrid로 연구자가 분석

표 5. Sarah의 그리드 요소 간 거리값 (Heckmann's approach)

	1	2	3	4	5	6	7	8	9
어린 시절의 나	1	0.21	0.30	-0.92	0.72	1.10	1.10	-1.56	<b>-2.95</b>
현재 자기	2		0.28	-1.36	-1.44	-0.47	-1.02	-1.31	<b>-2.62</b>
일반 여성	3			2.72	1.41	2.07	2.11	0.42	-0.98
일반 남성	4				1.73	1.44	1.98	1.18	0.38
아버지	5					<b>4.02</b>	<b>3.94</b>	-1.46	-2.22
파트너	6						3.24	-1.53	-2.44
이상적 자기	7							-1.05	-2.10
어머니	8								1.97
성학대자	9								

\* OpenRepGrid로 연구자가 분석

점수는 요소간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이다. Sarah는 요소 중 아버지와 파트너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었고(4.02), 이상적 자기와 파트너 역시 거리값이 크다(3.94). 어린 시절의 나와 성학대자, 이 두 요소의 거리는 -2.95로 가장 멀게 구성되었다. 이는 아버지와 파트너를 가장 유사하게 구성한다는 의미이며, 어머니와 성학대자는 오히려 거리가 가깝고 부정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Sarah의 아버지는 일찍 사망하였으나 그에게 이상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상적 자기와도 유사하게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Leach et al., 2001).

Leach 등은 치료 후, 3개월 후, 6개월 후의 요소쌍의 거리값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존감 측정치인 현재자기-이상적 자기가 가까워지고 어린 시절의 자기도 이상적 자기에 더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였으며, 수치심과 죄책감이 줄어든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each 등의 원논문(2001)을 참고할 수 있다.

**구성개념의 주성분 분석.**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구성개념과 요소(행과 열) 평정에 구별되는 변화 패턴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평정 패턴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행과 열에 따라 평정된 패턴이 특정한 패턴을 가질 때 이를 ‘성분 component’라 부른다. 방대한 자료를 비슷한 패턴끼리 성분으로 묶어 더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자료를 축소시킨다. 이를 통해 랩그리드 자료의 구조이자 응답자의 구성체계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평정 유사성은 구성개념 간 상관지수를 적용한다. 분석 프로그램마다 주성분분석을 표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프(plot)로 시각화하기도 한다(그림 1). 그래프는 패턴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구성개념 평정 패턴은 직선으로 제시되고 이들 직선 간 각도가 작을수록 평정이 비슷하고, 각도가 클수록 다르게 평정한 것임을 의미한다.

제1성분이 되는 가장 적합한 직선이 발견되고, 제1성분에 직각형태로 나타나는 두 번째로 적합한 직선이 제2성분이 된다. 제1성분이 자료에서 가장 많은 변량을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제2성분이 설명량이 많다는 것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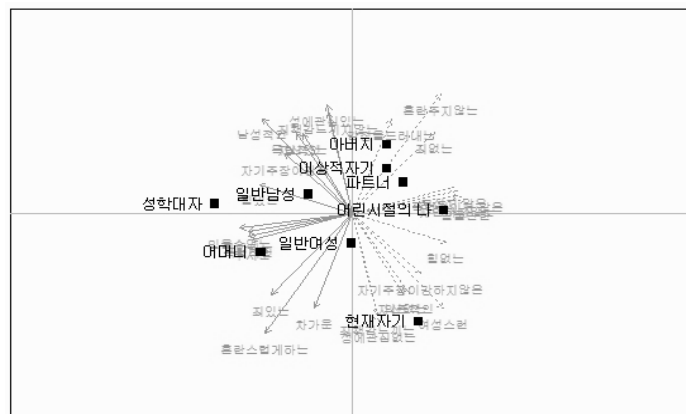


그림 1. Sarah의 그리드 주성분분석 그래프(Biplot, OpenRepGrid로 연구자가 분석)

이다. Sarah의 경우, 제1성분 설명량은 42%, 제2성분 설명량은 27%이다. 이들 직선 간 각도가 작을수록 구성개념 간 유사성이 크다. 예를 들어 ‘믿을만한-믿을 수 없는’은 ‘폭력적인-폭력적이지 않은’과 거의 평행에 가까운 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구성개념들 간 상관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죄책감느끼는-죄책감느끼지 않는’은 이 둘과 거의 직각에 가까운데 이는 상관이 0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주성분 분석의 직선 길이는 보통 설명량을 반영한다(Leach et al., 2001). Heckmann(2016)에 의하면, 랩그리드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가 그림 1에서와 같이 요소와 구성개념을 공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은 구성개념과 요소가 함께 시각화되어 제시된 biplot이다. 이는 응답자의 경험 세계에 대해 통찰을 주고 내담자-치료자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임상 가설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군집분석.** 구성체계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석방법이 군집분석이다. 관계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거리값, 유사성 측정치가 군집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tree 형태로 제시되는 덴드로그램이 요소와 구성개

념 별로 제시된다(그림 2).

Sarah의 그리드 요소 중 아버지, 파트너, 이상적 자기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일 수 있으며, 어머니와 성학대자가 유사한 것으로 묶일 수 있다. 현재 자기와 어린 시절의 자기는 가까이 제시되어 있지만 크게 유사한 것은 아니다(Leach et al., 2001). 구성개념 중 ‘폭력적인-폭력적이지 않은’과 ‘무섭게하는-무섭게하지 않는’은 가장 유사하게 군집화되고 여기에 ‘믿을 수 없는-믿을만한’이 가깝게 묶일 수 있다. 이 세 가지 구성개념은 Sarah의 구성체계 안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함께 영향을 줄 것이다.

**다른 지표들.**

**인지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Sarah가 직장 상사의 행동을 해석하는 중이라 가정하자. 그의 구성체계가 단순하여 한 가지 구성개념만으로 직장 상사의 행동을 가늠한다면 그의 구성체계는 다음 상황과 외부세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의 구성체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면, 그는 여러 차원에서 직장 상사의 행동을 해석하고 다음 상황을 제대로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

인지복잡성은 차원적 방식으로 사회적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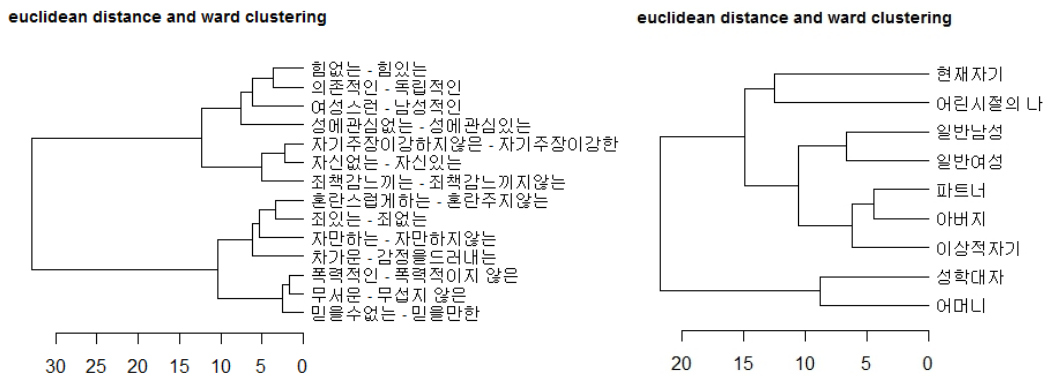


그림 2. Sarah의 그리드 군집분석 결과: 구성개념(좌), 요소(우) (OpenRepGrid로 연구자가 분석)

를 해석하는 경향이라 정의된다(Bieri, 1966). Bieri(1955)가 예측의 효율성이 높은 구성체계에 주목하면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래, 현재는 인지복잡성이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다시 분화와 통합으로 구분(Crockett, 1965)되기도 한다. 명칭의 변화 때문에 문헌상에서는 여러 혼란이 생겼고, 인지복잡성 지표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Gallifa와 Botella(2000)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지침에 따라 분화 및 통합 측정치를 구분하였고 황선정(2014)은 레퍼토리 그리드 매뉴얼 2판(2004)과 Gallifa 등(2000)의 연구를 참조하여 분화 및 통합 측정치를 분류, 요약한 바 있다.<sup>6)</sup>

본 연구에서는 PVAFF(Percentage of Variance Analysis First Factor)를 인지복잡성 측정치로 소개하고자 한다. OpenRepGrid 프로그램은 인지복잡성의 대표측정치로 PVAFF를 산출해내는데, Feixas 등(2004)은 이 수치가 인지복잡성을 나타내는 최적의 수치라 언급한 바 있다. PVAFF는 주성분분석의 구성개념 상관 매트릭스로부터 단일성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을 추출해낸다. 즉, 제1요인의 변량 비율이라 볼 수 있다. 만약 한 성분이 그리드에서 많은 변량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인지복잡성은 낮은 것이며, 그 구성체계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Bell, 2003). 단순한 구성체계로 인해 사건을 예측하는데 분화가 덜 발생하게 된다(Adams-Webber, 1970).

6) Gallifa와 Botella(2000)는 인지복잡성을 분화와 통합 두 차원으로 보았고, 분화 지표로는 Bieri, FIC(Functionally Independent Construction), PVAFF를, 통합 지표로는 Intensity, Ordination 측정치를 제시하였다. 황선정(2014)은 분화 지표로는 Bieri, FIC(Functionally Independent Construction), PVAFF를, 통합 지표로는 Intensity, Extremity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OpenRepGrid 프로그램을 통해 Sarah의 그리드를 채점한 결과, Sarah의 인지복잡성 지수는 0.719로 산출되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고분화를 의미하는데, Sarah의 경우는 주성분분석의 제1요인 설명량이 71.9%로 제1축에 수렴되는 변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arah의 인지복잡성이 높은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참고로 Feixas와 Saül(2004)의 논문에서 비임상군 63명의 PVAFF는 평균 42.30%의 수치를 보였다.

*암묵적 딜레마.* 예를 들어, Sarah는 우울한 상태라 가정하자. 그는 스스로를 소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소심한’의 반대를 ‘외향적인’이라고 보았고, 이 방향으로 자신이 변화하길 바란다. 그런데, 그에게 ‘외향적인’이라는 개념은 이기적이고 둔감한 것과 같은 부정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느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외향적인 것은 덜 소심한 것이지만, 동시에 더 이기적인 것이 된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이 과정은 그가 선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암묵적 딜레마’라 부른다(Winter, 1982). 그는 덜 소심한 것은 더 이기적이게 되는 것으로 예측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부정적 함의가 구성체계의 예측력과 정체성을 위협한다면 그는 변화에 저항하게 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그의 구성체계에서 일관성있는 논리적 결과가 된다(Feixas, Saül, & Sánchez, 2000).

즉, 암묵적 딜레마란 자기의 여러 측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을 의미하며, 이는 Hinkle(1965)이 고안한 인지적 갈등 지표 중 하나이다. 증상 개선을 원하지만 이와 연결되어 숨겨진 구성개념 때문에 변화할 수 없



는 상태를 일컫는다(Feixas, Montesano, Erazo-Caicedo, Compañ & Pucurull, 2014).

암묵적 딜레마의 해결은 증상개선과 관련있기 때문에, 개인구성심리학 연구에서도 여러 다른 장애군(섭식장애, 만성통증, 사회불안장애 등)에 인지적 딜레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자주 다루는 개념이다(Feixas & Saúl, 2004; Dorough, Grice & Parker, 2007) 국내의 개인구성심리학 연구에서도 암묵적 딜레마와 자기불일치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이세미, 2014; 정미라, 2015; 방은진, 2017).

Sarah의 경우, 치료 전 그리드에서 산출된 암묵적 딜레마의 수는 10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전 그리드만 제시하였지만, Leach 등 (2001)의 논문 원자료에는 치료 후 그리드도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로 분석한 결과, 치료 후의 암묵적 딜레마의 수는 8이다. 표 6은 Sarah의 치료 전 그리드에서 구성개념을 ‘일치하는’, ‘불일치하는’ 구성개념으로 분류한 내용이다. 표 7은 일치하는 구성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구성개념 간 상관을 제시하였다. 두 구성개념 간 상관을 함의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상관이 클수록 한 구성개념이 다른 구성개념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Feixas와 Saúl(2004)은 임상군은  $r = .20$  이상, 비임상군은  $r = .35$  이상의 상

관관계를 가질 때 ‘암묵적 딜레마’로 지칭한다. 표 7에서는 .20 이상의 상관값을 가지는 구성개념 쌍이 제시되어 있다. 만약 Feixas의 임상군 기준으로 본다면 .20이상의 상관이 암묵적 딜레마를 나타내므로, Sarah의 암묵적 딜레마 수는 10개가 된다. 암묵적 딜레마의 개수는 그리드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Feixas와 Saúl은 표준화를 위해 ‘암묵적 딜레마 백분율’을 활용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딜레마 자체가 병리의 신호는 아니지만, 딜레마가 심리적 고통과 관련이 있고 그 수나 강도가 과할수록 병리와 연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arah의 그리드 자료를 통해 암묵적 딜레마 내용을 분석한 결과, Sarah는 스스로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다 생각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쪽으로 변화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구성개념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믿을만한’ 것은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을 함의하고 있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자기주장이 강한’을 함의하고 있다. 즉, Sarah는 자기주장적인 태도를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암묵적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 구성개념 변화에 대한 함의를 이 지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치료 전 10개의 암묵적 딜레마가 치료 후 8개로 줄어들었다. 이는 암묵적 딜레마가 증상심각도와 관련 있고, 이것의 해결은 증상 개선과 관련있다는 다른 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Intensity.* ‘정직하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다른 누군가는 ‘정직한’ 구성개념보다 ‘자상한’ 구성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는 ‘정직한’ 구성개념을 ‘자상한’ 구성개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주변 사람을 대하거나

7) 구성개념을 일치하는 구성개념과 불일치하는 구성개념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Sarah의 그리드 경우, 자기 요소(현재의 자기)와 이상적 자기 요소의 평정점수 차이가 1점보다 작을 때,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구성이 비슷하다고 보고 ‘일치하는’ 구성개념으로 분류한다. 자기 요소와 이상적 자기 요소의 구성이 4점 이상의 차이가 나면, ‘불일치하는’ 구성개념이라 한다. 따라서 보통 5점 척도는 3점 이상, 7점 척도일 때는 4점 이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표 6. Sarah의 암묵적 딜레마 산출을 위한 구성개념 분류

		자기	이상적 자기
자기주장 강하지 않은-자기주장 강한	불일치하는	1	5
자신없는-자신있는	불일치하는	1	6
죄책감 느끼는-죄책감 느끼지 않는	불일치하는	2	7
폭력적이지 않은-폭력적인	일치하는	1	1
무섭게하지 않는-무섭게 하는	일치하는	1	1
믿을만한-믿을 수 없는	일치하는	1	1
힘없는-힘있는	둘다 아님	3	6
자만하지 않는-자만하는	둘다 아님	3	4
의존적-독립적인	불일치하는	2	7
혼란스럽게 하는-혼란주지 않는	불일치하는	2	7
죄있는-죄없는	불일치하는	3	7
차가운-감정을 드러내는	둘다 아님	3	6
여성스런-남성적인	둘다 아님	1	3
성에 관심없는-성에 관심있는	둘다 아님	3	6

note: 자기 점수가 4가 아닌 경우, 왼쪽 극단이 자기요소에 해당된다.

\* OpenRepGrid로 연구자가 분석

표 7. Sarah의 그리드에서 암묵적 딜레마가 있는 자기-이상적 자기 구성개념 쌍

일치하는 구성개념 Self - Not self	Rtot	불일치하는 구성개념 Self - Ideal Self	RexSI
폭력적이지 않은 - 폭력적인	0.51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 자기주장이 강한	0.46
무섭게 하지 않는 - 무섭게 하는	0.58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 자기주장이 강한	0.58
믿을만한 - 믿을 수 없는	0.65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 자기주장이 강한	0.72
폭력적이지 않은 - 폭력적인	0.39	자신없는 - 자신있는	0.31
무섭게 하지 않는 - 무섭게 하는	0.44	자신없는 - 자신있는	0.41
믿을만한 - 믿을 수 없는	0.47	자신없는 - 자신있는	0.55
믿을만한 - 믿을 수 없는	0.25	죄책감 느끼는 - 죄책감 느끼지 않는	0.15
폭력적이지 않은 - 폭력적인	0.39	의존적인 -독립적인	0.53
무섭게 하지 않는 - 무섭게 하는	0.43	의존적인 -독립적인	0.59
믿을만한 - 믿을 수 없는	0.46	의존적인 -독립적인	0.64

주1. Rtot: 자기와 이상적 자기를 포함한 상관

주2. RexSI: 자기와 이상적 자기를 뺀 상관

\* OpenRepGrid로 연구자가 분석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로 ‘자상한’ 보다는 ‘정직한’의 차원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그의 구성체계가 조밀한(tight) 상태라면 ‘정직한’ 구성개념은 다른 구성개념의 상위에 존재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조밀한 체계에서 ‘정직한’은 ‘배려 깊은’, ‘친절한’ 등으로 인식되지만, 느슨한 체계에서 정직한 사람은 배려깊지 않을 수도,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심술궂게 인식될 수도 있다.

‘구성체계의 조밀함과 느슨함’에 대한 Kelly의 개념을 Bannister(1960)는 Intensity로 설명하였다. Intensity는 구성체계의 이러한 조밀함과 느슨함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치이고, 구성개념 연결정도에 대한 측정치이자 구성체계의 조직화 정도를 반영한다. 조밀한 구성개념은 다양한 예측을 하기 어렵고, 느슨한 구성개념은 다양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점수가 낮을수록 느슨한 구성개념이라 보는데, 너무 느슨한 구성개념은 예측력이 거의 없어서 체계의 와해를 반영한다. 즉, 구조측정치로서 Intensity 점수는 체계 와해의 유형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의 사고는 순환적 방식으로, 느슨했다가 조밀했다가 느슨해지기를 반복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창조성으로 정의한 바 있다(Fransella et al., 2004). 심리치료 성과연구에서는 조밀함과 느슨함이 치료대상과 치료형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우울과 광장공포증 환자를 위한 치료 연구에서는 느슨한 구성이 치료성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신경증에는 치료가 진행될수록 조밀한 구성이 증상개선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성의 구조적 변화와 치료성과와의 관계는 단편적이지 않고 복잡하다(Winter, 2003). 즉, 한 개인의 구성체계는 느슨

해야하는가, 조밀해야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구성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는게 더 치료적인지는 개인의 현재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다르다.

Intensity는 위의 설명처럼 느슨함과 조밀함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핵심 구성개념과 주변 구성개념 차원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표 8에서 보듯이, 개인 내 평균점수 0.28이상이라면 그 구성개념은 개인구성체계 내에서 더 큰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면 되는데, 특히 5번, 6번, 8번 구성개념이 그러하다. 이처럼 Intensity는 Kelly(1955)가 구성체계의 위계를 언급할 때 사용한 개념이다. 황선정(2014)의 연구에서도 인지 위계 측정치로 핵심 구성개념을 보았는데 그는 핵심 구성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 개인이 보유한 구성개념은 모두 등가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더 중요한 구성개념이 있는가하면 덜 중요한 구성개념이 있으며, 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Fransella 등(2004)은 한 개인에게 더 중요한 구성개념을 핵심 구성개념 (혹은 중심 구성개념, core construct)이라 하였으며 구성개념 간 상관값에 의해 계산되는 Intensity값이 핵심 구성개념의 측정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OpenRepGrid 프로그램을 통해 Sarah의 그리드를 채점한 결과, Intensity 수치가 가장 큰 구성개념은 ‘믿을수 없는-믿을만한(0.41)’으로 나타났다. 이는 Sarah의 핵심 구성개념이며, 위계적으로 다른 구성개념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Sarah는 주변인물과 세상을 대할 때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심 개념인 구성체계로 파악하고, 해석하고, 예측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섭게 하는-무섭게 하지 않는(0.40)’과 ‘자만하는-자만하지 않는(0.40)’과 같은 구성개념은 Sarah의 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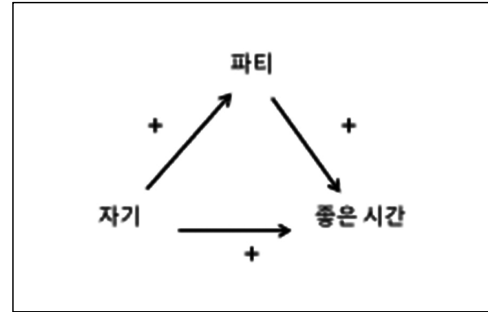
표 8. Sarah의 그리드 구성개념의 Intensity 값

	Intensity
1 자기주장 강한-자기주장 강하지 않은	0.29
2 자신있는-자신없는	0.24
3 죄책감 느끼지않는-죄책감 느끼는	0.20
4 폭력적인-폭력적이지 않은	0.35
5 무서운-무섭지 않은	0.40
6 믿을 수 없는-믿을만한	0.41
7 힘있는-힘없는	0.33
8 자만하는-자만하지 않는	0.40
9 독립적인-의존적인	0.27
10 혼란스럽게 하는-혼란주지 않는	0.30
11 죄있는-죄없는	0.29
12 차가운-감정을 드러내는	0.17
13 남성적인-여성스런	0.23
14 성에 관심있는-성에 관심없는	0.09
평    균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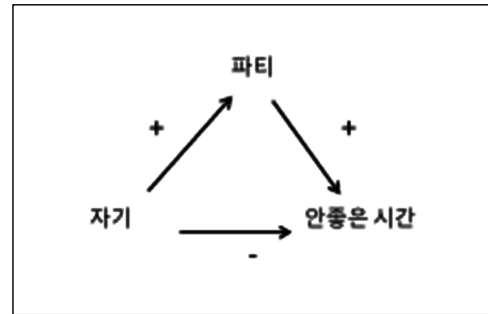
\* OpenRepGrid로 연구자가 분석

심 구성개념에 대한 구체적 예시라 볼 수 있다. 즉, Sarah는 ‘무섭게 하고, 자만하는’ 특성을 보이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갈등 분석.** 한 사람의 구성체계 안에 있는 여러 구성개념은 그들끼리 갈등(혹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 요소와 구성개념 역시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요소와 구성개념 세 개를 모아 상관관계 혹은 거리값을 비교해보면 갈등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를 ‘불균형한’ 삼자관계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관계를 ‘균형있는’ 삼자관계라 지칭한다. Lauterbach(1975)의 예를 설명하자면,



(A)



(B)

그림 3. 균형있는 삼자관계(A)와 불균형한 삼자관계(B)의 예시(Fransella et al., 2004)

그림 3의 (A)에서, ‘자기’와 ‘파티가는 것’은 + 부호로 표시되어, 상관이 정적임을 의미한다. ‘파티’는 ‘좋은 시간’과 +부호로 표시되어 있고, 이 역시 정적 상관이다. 자기와 좋은 시간도 정적 상관이다. 이 삼각관계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균형있는 관계로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파티에 간다.파티는 즐거운 것이다.나는 즐거운 시간이 좋다’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B)는 불균형한 삼각관계의 예시이다. ‘자기’와 ‘파티’는 정적 상관, ‘자기’와 ‘안좋은 시간’은 부적 상관이지만, ‘파티’와 ‘안좋은 시간’이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는 파티에 간다.나는 안좋은 시간이 싫다.파티는 안좋은 시간과 상관이 높다’로

표 9. Sarah의 삼각불균형에 기초한 갈등 혹은 비일관성 수치(Bell, 2004)

	구성개념	%	요소	%
1	자기주장 강한-자기주장 강하지 않은	8.09	어린 시절의 나	10.9
2	자신있는-자신없는	7.65	현재 자기	7.9
3	죄책감 느끼지않는-죄책감 느끼는	9.12	일반 여성	1.8
4	폭력적인-폭력적이지 않은	7.35	일반 남성	8.2
5	무서운-무섭지 않은	6.47	아버지	16.5
6	믿을 수 없는-믿을만한	6.76	파트너	10.3
7	힘있는-힘없는	6.18	이상적 자기	14.7
8	자만하는-자만하지 않는	6.18	어머니	10.6
9	독립적인-의존적인	6.03	성학대자	19.1
10	혼란스럽게 하는-혼란주지 않는	6.91		
11	죄있는-죄없는	6.18		
12	차가운-감정을 드러내는	6.03		
13	남성적인-여성스런	7.50		
14	성에 관심있는-성에 관심없는	9.56		
		100.00		100.00
	Cramer's V(index of Conflict Variation)	.109	Cramer's V	.309

해석가능하여 이 응답자의 구성체계에는 인지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Fransella et al., 2004).

본 연구에서 OpenRepGrid 프로그램으로 Sarah의 그리드를 채점한 결과, Sarah의 치료전 그리드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갈등의 수는 819개이며, 요소와 구성개념 간 거리값에 기초하여, 불균형한 삼자관계를 보이는 실제 갈등지수는 340개였다. 따라서 전체 갈등비율은 4.15%이다. 표 9에서는 카이검증을 통해 요소와 구성개념 별 갈등수치를 제시하였다. 요소 중 ‘아동기 성학대자’의 갈등지수가 가장 높았다(19.1%). 구성개념 중에서는 ‘성에 관심있는-성에 관심없는’(9.56)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죄책감을 느끼는’(9.12)가 삼자관계에서 모순이 나타나 갈등을 유발하는 구성개념으로 드러났다.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과 구성개념을 종합하면, 아동기의 성학대 경험이 Sarah의 구성체계에 여전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ell(2004)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는 Cramer's V값과 함께 인용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카이검증 유의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Cramer's V값을 통해 그리드 간 비교가 가능하다.

일반적 해석

개인구성심리학 연구자들은 랩그리드의 방

표 10. 렘그리드 분석 기준

수준 / 단계	기법	내용
Leach et al. (2001)	1. 오리지널 그리드 분석	매우 상세한 수준  ↓  큰 그림을 그리는 수준
	2. 요소, 구성개념 간 유사성 파악	
	3. 요소 전체, 구성개념 전체 구조를 각각 분석	
	4. 요소와 구성개념을 함께 분석	
	5. multiple grid 분석	
Jankowicz (2004)	1. 그리드 서술하기	응답자가 말하려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그의 의도에 가까워지기 위한 단계. 이 단계가 성공적인지는 응답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응답자도 인터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2. 그리드 구조 서술하기	요소 간, 구성개념 간 관계를 탐색하는 단계. 인터뷰로 즉시 명확해지지는 않지만 연구자가 지적하면 응답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3. 그리드 지표 분석	연구목적에 따라 응답자가 구성한 방식을 한두 개의 지표로 요약하는 것으로 그리드 구조 서술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지표는 그리드 평정 구조에 따라 다르고, 이는 응답자의 사고 스타일에 대한 것이다. 인지복잡성, 극단점수 등은 상담과 치료에 활용되고 응답자에 대한 많은 정보 중 하나가 된다. 다른 정보와 개인 역사 안에서 조심히 해석되어야 한다.
Winter (2003)	1. 공통적 구조측정치	응답자의 구성체계 구조 특징을 보기 위한 것
	2. 구성체계 내용측정치	특정 요소가 구성되는 방식, 구성개념 유형, 구성개념 간 특정 관계에 대한 측정치
황선정 (2014)	1. 자기구성측정치	응답자가 self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
	2. 인지측정치	응답자의 self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가에 대한 정보

대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ach 등 (2001)과 Jankowicz(2003), Winter(2003), 황선정 (2014)이 제시한 분석과 해석 지침을 종합하였고, 비교하기 쉽도록 표 10에 제시하였다. 이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분석방법, 수준,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소개한 랩그리드 기법은 실증적 패러다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구성주의심리학의 한 지류인 개인구성심리학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현재적으로 보이는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고 (Neimeyer, 1992), 당대에는 대단히 혁명적이었고 오늘날에는 대단히 현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민경환, 2002). 개인구성심리학은 모더니즘을 벗어나 포스트모더니즘을 향하는 현대의 시대사조와 맥을 함께 하는 이론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그림을 제공하는 이론이자 실제이다.

개인구성심리학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이자 심리치료기법이며, 구성개념 평가도구인 랩그리드 기법은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질적 연구방법이면서, 동시에 양화할 수 있는 구조 측정치를 제공해주는 장점이 있다. 연구주제에 맞게, 랩그리드 채점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산출된 측정치를 분석하여 개인의 구성체계를 해석해낼 수 있다. 즉, 랩그리드 결과를 통해 한 개인의 의미체계와 경험에 대한 구성을 통해 자기·타인·세상을 보는 관점을 해석할 수 있다.

개인구성심리학과 랩그리드 기법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랩그리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이 기법이 지닌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랩그리드 기법의 활용분야

첫째, 개인구성체계의 확인이 필요한 연구에 쓰일 수 있다. 랩그리드의 특성 상,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이론인 개인구성체계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연구 분야라면 어디든 쓰일 수 있다. 또한 자기self의 특성, 세상을 보는 관점을 드러내 주기 때문에(Neimeyer, 1985a), 한 개인이 가진 기저(underlying) 신념과 태도, 가치를 연구하는데 유용하다. 중요한 타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Ryle, 1985)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인지적 갈등, 자기불일치나 자존감 연구, 대인관계(연인, 친구, 부부관계) 연구 등에도 활용가능하다(Feixas & Saül, 2004; Adams-Webber, 1989; Salla, Feixas, Ballén, Muñoz & Compañ, 2015; Catania & Randall, 2015; Childs & Hedges, 1980; O'Loughlin, 1989). 개인의 가치 탐색, 핵심 구성개념 탐색 연구에는 랩그리드 외에도 구성주의 심리학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래더링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Neimeyer, Anderson & Stockton, 2001; Miles & Leinster, 2010).

개인구성체계 확인과 관련하여, McDaniel과 Grice(2008)는 자기불일치 정도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연구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랩그리드의 요소로 실제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를 제공하였으며, 이들의 차이값이 자기불일치 정도를 의미하였다.

둘째, 상담 및 심리치료의 과정/성과 연구, 특정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구성심리학 초기논문에서는 집단상담 안에서의 변화를 그리드를 통해 탐색한 바 있고 (Watson, 1970; Fransella & Joyston-Bechal, 1971),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연구나 집단 상담에서 집단구성원 간의 관계 연구 등의 상담과정 연구에 랩그리드가 활용가능하다. 특정 상담 기법의 효과연구나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에도 개입 전·후의 그리드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내담자와 집단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리드의 변화가 증상개선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왔다. 대표적으로 Winter (1982; 1992; 2003)의 논문과 저서는 심리치료 실제에서 개인구성심리학 활용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그리드 분석이 구성체계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도구이며, 상담을 통한 자기재구성 과정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라 설명하였다. 특정 증상이 그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상담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사례개념화 및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이해하는데 활용가능하다. 개인의 성격 특성, 의미체계의 특성, 자기구성의 특성, 인지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이를 자료로 삼아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함께 탐색하고 사례개념화 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Bell(1990)은 심리검사로서 랩그리드의 가치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넷째, 특정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쓰일 수 있다. 특정 집단을 이해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면, 랩그리드는 그 특징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 강박과 같은 정신장애에 대한 특성 연구가 가능하다(Sheehan, 1985;

Neimeyer, Heath & Strauss, 1985; Haltenhof, Stapenhorst & Krusel, 1996; Makhoul-Norris & Norris, 1973). 개인구성심리학 초기논문은 조현병과 사고장애, 말더듬 증상의 특성을 연구한 바 있다(Bannister, 1960; Bannister & Fransella, 1965; Fransella, 1968; Fransella et al., 2004, 재인용). 이 밖에도 자살시도(Parker, 1981), 아동학대 생존자 연구(Harter, 2000), 가정폭력 피해자 (Soldevilla, Feixas, Varlotta & Cirici, 2014), 섭식장애와 자기개념(Button, 1993; Marsh & Stanley, 1995), 알콜중독 연구(Hoy, 1973; Bailey & Sims, 1991), 범죄수감자 연구(Yorke & Dallos, 2015) 등에 활용된 바 있다. 교사나 간호사(Clinton, Molye & Edwards, 1995; Björklund, 2008; Edwards, 1997) 뿐 아니라 상담전문가, 아동·청소년, 특정 성격유형 군 등 다양한 특정 집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Moradi, van den Berg와 Epting (2009)은 동성애 집단의 심리내적 특성을 탐색하는데 랩그리드를 활용하였다. 자기, 선호하는 자기, 레즈비언(게이)로서의 자기를 랩그리드의 요소에 포함시켰으며, 내재화된 동성애 편견으로 인한 그들의 위협감과 죄책감을 측정치로 산출하였다. 이 외에도 Carapeto와 Feixas(2018)는 후기 청소년 집단의 우울 증상과 구성체계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극단평정정도, PVAFF, 암묵적 딜레마, 이상적 자기-실제 자기 편차 등의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사례 연구(case study)와 같은 소규모 연구에 유용하다. 랩그리드 기법은 개별성과 보편성(individual collorary vs commoality collorary) 탐색, 둘 다에 활용가능하다. 특정 집단의 보편적 특성을 파악하여 공통성을 추론해낼 수도 있고, 한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 소규모 질적연구도 가능하다. 특히, 질적 연구의 한 예로, Neimeyer와 Stewart(1996), Gerrish, Steed와 Neimeyer(2010), Gerrish, Neimeyer와 Bailey(2014)는 랩그리드 변형 형태인 생애사 그리드(biographical grid)를 활용한 바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주변인물을 요소로 제시하는 대신, 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요소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삶의 주요한 경험들이 참여자의 구성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랩그리드와 외상 후 성장 연구, 정체성 변화 연구, 자기개념 변화 연구 등에 활용되면서 개인의 의미와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줄 수 있다.

특히, Neimeyer와 Stewart(1996)는 생애사 그리드를 치료도구로 활용하였는데, 상담회기 중에 내담자의 외상경험을 통합하고 자기내러티브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는 내담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열하고 개인적 의미(구성개념)를 도출해냈다. 과거의 외상경험에 주목하여 탐색함으로써, 증상경감을 넘어서서, 붕괴된 정체성과 잃어버린 기억에 대해 더 접촉하도록 도왔다. 이는 파편화된 기억을 응집력있는 이야기로 복구시키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Herman(1997/2007)의 치유를 위한 세 단계, 특히 2, 3단계인 기억과 애도, 연결의 복구 단계와도 흡사하다.

#### 랩그리드 기법의 유용성과 한계점

첫째, 랩그리드 기법은 질적 연구법이자, 개인의 특성을 양화된 수치로도 설명가능한 도구이다. 앞서 소개한대로, 단일 사례에서 얻은 자료로 많은 유형의 집단 통계를 실시할 수 있다(Fransella et al., 2004). 체크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측정치는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논리(research logic)상 랩그리드 기법은 질적 연구방법에 속한다. 조용환(1999)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기준을 참고한다면 랩그리드 역시 다른 질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 연구맥락에서, 대화과정을 거쳐, 연구자의 주관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설득’의 맥락이 아닌 ‘발견’의 맥락으로 참여자를 만나고 연구를 진행하는 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가 언어로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기술하는 반면, 랩그리드 기법은 개인의 특성과 특정현상을 양화된 지표로도 제시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연구주제와 목적에 맞게 질적으로 제시할 수도, 특정현상을 양화시켜 지표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법을 인터뷰가 아닌 지필검사로 변형하여 다수의 사례에 활용하거나(Hopper, 1991), 제공된 요소와 구성개념으로 보편정립적 그리드(nomothetic grid; Grice, 2004)를 활용한 연구도 있다. 이처럼 랩그리드 기법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Jankowicz, 2003)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의 유용성을 더 강조하였다.

이러한 랩그리드의 독특성 때문에 Bannister(1965)는 이 기법이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의 교차점에 있으며, 보편법칙적 접근과 개별기술적 접근간의 간극을 이어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랩그리드는 구성개념의 내용에 있어서는 개별기술적인 정보를, 구조에 있어서는 표준화되고 양화될 수 있는 구성 측정치들을 제공해주는 연구방법론이다(Feixas, Erazo-Caicedo, Harter, & Bach, 2008). 종합하자면, 랩그리드 기법을 양적이냐, 질적이냐로 구분짓기보다 “의미(meaning)가 문자로 드러나고 숫자로도

드러나는 기법(Jankowicz, 2003)”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둘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질적 연구방법이다. 황선정(2011)에 의하면, 근거이론과 합리적 질적분석(CQR)은 연구자가 참여자를 인터뷰하고, 녹취록을 텍스트로 삼아 자료의 요약 및 가공의 공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연구자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연구 기간이 평균 1년에서 2년 소요되기도 한다. 또, 자료의 요약과 범주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의미한 자료의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단점도 있다. 이는 많은 종류의 질적분석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랩그리드는 경험의 어떤 영역에 대한 개인의 지각, 즉 구성개념을 조직화하는 기법으로서 개인, 의미있는 타인, 생활사건 등과 관련된 요소와 구성개념이 숫자로 된 매트릭스로 제시되고, 구성개념이 숫자로 표시되어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시와 채점이 아주 간소하다. 그러면서도 분석 결과로 제시된 수학적 결과표들은 개인의 구성개념과 구성작용을 손실없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주고 그들의 심리적 공간에 있는 큰 지도를 제공해준다.

셋째, 이론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이다. 랩그리드는 ‘구성은 개인의 의미’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이론에서 파생된 연구방법론이다. 개인구성이론을 바탕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개인은 자신만의 과학자라는 관점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자 창문인 구성체계가 드러난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그리드 자료는 개인구성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의미체계가 파악되고 분석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랩그리드는 개인구성심리학이 고안한 연구방법론이지만, 전체 구성주의 심리학에서 널리 쓰일 수 있

다. 구성주의의 기본적 관점에 흥미있는 연구자들은 누구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넷째, 암묵적 지식<sup>8)</sup>(tacit knowledge)이나 개념 도출에 유용하다. 랩그리드 기법은 특정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식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고 평가받는다. 랩그리드의 이러한 접근은 경영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상담심리학 연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랩그리드 기법은 참여자(내담자)의 의식적 차원의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의식되지 않는 ‘단어너머의 것’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 Ryle(1975)은 전적으로 자각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의식될 수 있는 구성의 측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레퍼토리 그리드 검사는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무의식적’이라 언급하긴 하였으나, Freudian이 쓰는 무의식 개념이라기보다 의식되지 않는 ‘암묵적’ 차원의 지식과 구성개념에 대한 언급이라 볼 수 있다. Kelly는 ‘무의식’의 실체보다는 ‘서로 다른 인지적 자각 수준에서의 구성개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선호했다. 높은 수준의 자각이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깊은 의미가 되었을 때 일어난다. 가장 낮은 수준의 인지적 자각은 전언어

8) Polanyi, M.은 객관적이며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지식만이 앎의 전부가 아니며 명시적인 말이나 도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앎의 유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Polanyi, 2001; 표재명 외역). 모든 지식은 암묵적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암묵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언어로 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적 구성개념(preverbal construct)이다. 단어로 상징되지 않는데도 계속 사용되는 구성개념이다. 개인구성이론에서는 이러한 전언어적 구성개념에 언어적 명칭(label)을 붙이도록 도와 바라보고, 숙고하고, 의미를 만들게 한다(Fransella et al., 2004). 따라서 랩그리드는 특정 영역에서 응답자의 암묵적 지식을 연구하거나 전언어적 구성개념을 언어화하는데 유용하다. 방어적이거나 자기직면에 저항하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랩그리드를 투사적 기법이라 보기도 한다.

다섯째, 랩그리드는 활용범위가 넓다. 본 연구에서는 랩그리드를 주로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연구도구로써, 성격심리학·임상심리학·상담심리학 등 심리학 전반에서 활용가능할 것이다. Satil 등(2012)의 서지학적 개관 연구(bibliometric review) 결과, 262편의 연구 중 심리평가 영역(98), 교육심리(65), 사회 및 조직심리(45), 심리치료(30), 성격(19) 영역 등에서 랩그리드 기법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McDaniel과 Grice(2005)는 성격연구에 랩그리드를 활용한 바 있다. 성격차원에서 자기불일치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성격5요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랩그리드 기법은 연구방법일 뿐 아니라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 심리치료 기법, 상담 성과 평가도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인구성심리치료에서 개인의 심리적 문제는 경험에 따라 구성을 변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개인구성체계를 탐색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를 촉진하며 재구성하도록 돕는 것이 심리치료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랩그리드는 치료기법이자 평가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Metcalf, Winter와 Viney(2007)는 개인구성심리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체계적 리뷰, 메타분석을 통해 수집·분석하였는데, 통제집단에 비해 혹은 처치 전에 비해 개인구성심리치료의 성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대상이 된 연구들은 개인구성심리치료의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한 연구들로, 랩그리드를 활용한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황선정(2011)의 주장에 의하면, 랩그리드 기법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적 방법론만으로는 실제의 간격을 좁히고 결과적으로 연구결과를 내담자 이해에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질적 연구방법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실제와 연구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점에서 랩그리드 기법이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초기 상담관계에서 랩그리드를 활용하여 내담자의 핵심 구성개념을 파악하고, 대인관계의 핵심갈등을 파악하여 사례개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 회기 안에서 랩그리드를 활용하면, 내담자의 구성체계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으며 내담자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상태와 변화를 점검하고 상담목표를 수정할 기회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변화의 동기를 촉진하고, 자기이해를 돕는 도구가 된다. 상담 과정과 성과와 관련하여 랩그리드의 자료는 내담자가 상담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며, 상담과정을 해석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구성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보를 주는 도구로 활용가능하다.

모든 연구법이 장단점이 있듯이, 랩그리드 또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한 연구방법론이 확립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이 있다면, 연구법을 활용할 때 그 이론을 충분히 이해해야한다. 개인구성심리학의 인간관과 기본철학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연구법의 핵심을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뜻이다. 황선정(2011)은 랩그리드를 기법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구성이론에서 전제하는 인간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사용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Guba와 Lincoln(2005)이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저서에서 이론적 패러다임과 관점은 질적 연구자의 존재론과 인식론, 방법론에 대한 신념 및 원리와 결부되어, 연구전략과 자료수집 및 분석, 해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기본적인 지향을 형성한다고 본 관점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랩그리드 연구방법 자체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배경이 되는 이론과 철학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구성심리학의 초보연구자에게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랩그리드 및 구성주의 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을 연구하고 활용하면서, 연구자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내담자·관계·자신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경험적 연구의 경우 응답자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황선정, 2011), 연구자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국외 개인구성심리학 연구자들의 경우, 기존의 표준화된 연구설계와 연구방법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Winter(2003)에 의하면, 그들 중 일부는 전적으로 구성은 개인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표준점수나 표준화에 저항하기도 한다. 이는 순수한 질적 연구로서의 랩그리드를 강조하는 학자들의 의견이다.

본 연구에서도 랩그리드의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한된 관점이 랩그리드의 더 넓은 확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랩그리드를 통한 개별적 질적 접근으로 개별사례의 독특성과 개인차를 탐색해냄과 동시에, 보편법칙적 패턴을 탐색해낼 수 있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내 상담심리학 및 심리학 연구에서 개인구성심리학과 구성주의심리학을 다룬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 진행된 국내 연구도 몇 가지 특정 지표들을 다룬 경험연구로서 개별사례의 질적 분석이나 개별성이 드러나는 질적 자료를 활용한 경우는 더욱 드물었다. 이에, 구성주의심리학, 개인구성심리학에 대한 연구, 랩그리드를 활용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구성심리학과 랩그리드 기법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모색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이는 그저 기초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개인구성심리치료의 여러 연구결과와 국내외 연구동향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줄 문헌 연구, 랩그리드 기법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다양한 사례에 활용하여 분석한 경험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한 개인구성심리학과 랩그리드가 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연구, 심리치료 영역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2년~

- 2011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29-752.
-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 박성희 (1996). 상담학 연구방법론의 패러다임과 분석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 201-235.
- 박성희 (2001). 상담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 방은진 (2017). 암묵적 딜레마와 인지복잡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정락 (1989). 정신분열증 형태 사고장에 환자의 이완 구성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1), 97-115
- 손정락 (2006). 만성 통증에 대한 구성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3), 437-455.
- 양근원 (2005). 인지 및 정서 복잡성과 공감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연문희, 박남숙 (2001). 교육과 상담에서의 질적 연구. 연세교육연구, 14(1), 243-263
- 이세미 (2014). 자기불일치와 암묵적 딜레마가 우울과 우울 지속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 이장호, 김정옥 (1998). 상담 연구 방법론의 확장. 심리학의 연구문제, 193-229.
- 정미라 (2015). 자기불일치가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용환 (1998a).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그 방법과 쟁점(교육인류학연구회 1998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3-24.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 함승모 (2015).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 도출 기법 선택 모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영주, 최한나 (2014) 상담자의 경력, 인지적 복잡성 및 정서적 복잡성이 타당화 개입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5(1), 93-105.
- 황선정 (2014). 자기애성 성격의 인지구성: 구성주의 레퍼토리 그리드의 적용.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선정, 조성호. (2011). 인간 이해와 심리치료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 인간연구, 21, 141-184.
- 황선정, 조성호. (2015).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 유형에 관한 연구: 구성주의 자기 조직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3), 613-640.
- 황선정, 조성호. (2016). 병리적 자기애의 하위 유형별 인지 위계: 구성주의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59-694.
- Adams-Webber, J. (1970). An analysis of the discriminant validity of several repertory grid indice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61(1), 83-90.
- Adams-Webber, J. (1989b). Some Reflections on the “meaning” of repertory grid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2, 77-92.
- Adams-Webber, J. (2006). A Review of: “Repertory Grid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9(4), 351-353.
- Bailey, P. E., & Sims, A. C. P. (1991). The Repertory grid as a measure of change and predictor of outcome in the treatment of

- alcoholism.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4(3), 285-293.
- Bannister, D. (1960). Conceptual structure in thought-disordered schizophrenics. *Journal of Mental Science*, 106, 1230-1249.
- Bannister, D. (1965). The genesis of schizophrenic thought disorder: re-test of the serial invalidation hypothesi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1, 377-382.
- Bell, R. C. (2003). An evaluation of indices used to represent construct structure. In Chiari & Nuzzo (Ed.), *Psychological Constructivism and the Social World*, (pp. 297-305). Milano: FrancoAngeli.
- Bell, R. C. (1990). Repertory Grids as mental tests: Implications of test theories for grids.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3, 91-103.
- Bell, R. C. (2004). A New Approach to Measuring Inconsistency or Conflict in Grids. *Personal Construct Theory & Practice*, 1, 53-59.
- Björklund, L. (2008). The Repertory Grid Technique: making tacit knowledge explicit: assessing creative work and problem solving skills, In Middeston, H.(Ed.), *Researching Technology Education: Methods and Techniques*. (pp. 46-69). Sense Publishers.
- Bieri, J. (1955). Cognitive complexity-simplicity and predictive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2), 263.
- Bieri, J., Atkins, A. L., Briar, S., Leaman, R. L., Miller, H., Tripodi, T. (1966). *Clinical and social judgement*. New York: Wiley.
- Brown, R. W. (1958). Is a boulder sweet or sour. *Contemporary Psychology*, 3(5), 113-115.
- Button, E. J. (1993). *Eating Disorders: Personal Construct Therapy and Change*.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Carapeto, M. J., & Feixas, G. (2018). Self-Knowledge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Study Using the Repertory Grid Technique.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17.
- Catania, G., & Randall, R. (2015). The repertory grid technique as a method for eliciting tacit knowledge. *European Conference on Research Methodology for Business and Management Studies*: 104-IX.
- Childs, D., & Hedges, R. (1980). The analysis of interpersonal perceptions as a repertory grid.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3, 127-136.
- Clinton, M., Moyle, W., Weir, D., & Edwards, H. (1995). Perceptions of stressors and reported coping strategies in nurses caring for residents with Alzheimer's disease in a dementia unit.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4, 5-13.
- Crockett, W. (1965). Cognitive complexity and impression formation, in BA maher (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 Dalton, P., & Dunnnett, G. (1999). *A psychology for living: personal construct theory for professionals and clients*. Wiley-Blackwell.
- Dorough, S., Grice, J., & Parker, J. (2007). Implicative dilemmas and general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 Construct Theory & Practice*, 4, 83-101.
- Edwards, B. (1997). A & E nurses' constructs on

- the nature of nursing expertise: a repertory grid technique. *Accident and Emergency Nursing*, 6, 18-23.
- Efran, J. S., McNamee, S., Warren, B., & Raskin, J. D. (2014).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radical constructivism, and social constructionism: A dialogue.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7(1), 1-13.
- Feixas, G., Saúl, L., & Sánchez, V. (2000). Detection and analysis of implicative dilemmas: Implications for the therapy process. *The Person in Society-Challenges to a Constructivist Theory*. (pp.391-399). Giessen: Psychosozial-Verlag.
- Feixas, G., & Cornejo. (2002) GRIDCO <http://www.terapiacognitiva.net/record/gridcor.htm>.
- Feixas, G., Saúl, L. Á. (2004). The multi-center dilemma project: An investigation on the role of cognitive conflicts in health.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7(1), 69-78.
- Feixas, G., Erazo-Caicedo, M. I., Harter, S. L., & Bach, L. (2008) Construction of self and others in unipolar depressive disorders: a study using repertory grid techniqu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3), 386-400.
- Fransella, F. (1977). The self and the stereotype. In D. Bannister(Ed.), *Obsessional Disorder*. London: Methuen.
- Fransella, F. (1968) Self-concept and the stutter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4, 1531-1535.
- Fransella, F. (2008) 인지 구성주의의 선구자: 조지 켈리 [George Kelly]. (이훈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5년에 출판).
- Fransella, F., & Joyston-Bechal, M. P. (1971). An investigation of conceptual process and pattern change in a psychotherapy group.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9, 199-206.
- Fransella, F., Bell, R., & Bannister, D. (2004). *A manual for repertory grid technique(2nd)*. England: John Wiley & Sons.
- Gallifa, J., & Botella, L. (2000). The structural quadrants method: A new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construct system complexity via the repertory grid.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3(1), 1-26.
- Gerrish, N. J., Steed, L. G., & Neimeyer, R. A. (2010). Meaning reconstruction in bereaved mothers: A pilot study using the biographical grid method.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3(2), 118-142.
- Gerrish, N. J., Neimeyer, R. A., & Bailey, S. (2014). Exploring maternal grief: A mixed-methods investigation of mothers' responses to the death of a child from cancer.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7(3), 151-173.
- Grice, J. W. (2004), Bridging the Idiographic-Nomothetic Divide in Ratings of Self and Others on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72, 203-241.
- Guba, E. G., Lincoln, Y. S. (2005).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In N. 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191-215). Thousand Oaks: Sage.
- Haltenhof, H., Stapenhorst, J. & Krusel, R. (1996). Personal Construct approach to depressive disorders: a short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preliminary results of two studies, in J. W. Scheer & A. Catina(Eds.), *Empirical*

- Constructivism in Europe: the Personal Construct Approach*. Giessen: Psychosozial-Verlag.
- Hardison, H. G., & Neimeyer, R. A. (2007). Numbers and narrativ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onvergence across constructivist assessments.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0(4), 285-308.
- Harter, S. L. (2000). Quantitative measures of construing in child abuse survivors.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3, 103-116.
- Heckmann, M. (2016). OpenRepGrid: An R package for the analysis of repertory grids. R package version 0.1.10. Available from: <https://cran.r-project.org/package=OpenRepGrid>.
- Herman, J. (2007). 트라우마-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Trauma and recovery]. (최현정 역). 서울: 플 래닛 (원전은 1997년에 출판).
- Hinkle, D. N. (1965). The Change of Personal Constructs from the Viewpoint of a Theory of Construct Implications.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 Hopper, T. (1999). The Grid: Reflecting from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s of Being Taught.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70(7), 53-59.
- Hoy, R. M. (1973). The meaning of alcoholism for alcoholics: a repertory grid study.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2(1), 98-99
- Jankowicz, D. (2003). *The easy guide to repertory grids*. John wiley & sons.
- Kelly, G. A. (1999).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Routledge. (원전은 1955년에 출판.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Volumes I & II*)
- Landfield, A. W. (1971). *Personal construct systems in psychotherapy*. Chicago: Rand McNally.
- Lauterbach, W. (1975). Assessing psychological conflict. *The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1), 43-47.
- Leach, C., Freshwater, K., Aldridge, J., & Sunderland, J. (2001). Analysis of repertory grids in clinical practice.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3), 225-248.
- Makhlouf-Norris, F., & Norris, H. (1973). The obsessive compulsive syndrome as a neurotic device for the reduction of self-uncertaint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2(568), 277-288.
- Marsh, M., & Stanley, R. (1995) Assessment of self and others during treatment for anorexia nervosa.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8, 97-116.
- Maturana, H. R., & Varela, F. J. (2007). 앎의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The biological roots of human understanding] (최호영 역). 서울: 갈무리. (원전은 1987년 출판).
- McDaniel, B. L., & Grice, J. W. (2005). Measuring self-discrepancies on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with the repertory grid. *Personal Construct Theory & Practice*, 2, 18-31.
- McNamee, S., & Gergen, K. J. (2004) 심리치료와 사회구성주의 [Therapy as social construction]. (김유숙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2년 출판).
- Metcalfe, C., Winter, D., & Viney, L. (2007).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construct psych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sychotherapy Research*, 17(4), 431-442.



- Miles, S., & Leinster, S. J. (2010). Identifying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ideal medical doctor: the laddering technique. *Medical Teacher*, 32(2), 136-140.
- Moradi, B., van den Berg, J. J., & Epting, F. R. (2009). Threat and guilt aspects of internalized antilebian and gay prejudice: An application of personal construct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119.
- Neimeyer, G. J. (1992). Back to the future with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Psycritiques*, 37(10), 994-997.
- Neimeyer, R. A. (1985a). 'Personal constructs in clinical practice' in P.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 Neimeyer, R. A. (1985b). *The development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Neimeyer, R. A., Heath, A. E., & Strauss, J. (1985). Personal reconstruction during group cognitive therapy for depression, in F. R. Epting & A. W. Landfield (Eds.), *Anticipating Personal Construct Theory*.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Neimeyer, R. A., Baker, K. D., & Neimeyer, G. J. (1990).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construct theory: Some scientometric data. *Advances in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1, 3-22.
- Neimeyer, R. A., & Stewart, A. (1996). Trauma, healing, and the narrative employment of loss.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Services*, 77(6), 360-375.
- Neimeyer, R. A., Anderson, A., & Stockton, L. (2001). Snakes versus ladders: a validation of laddering technique as a measure of hierarchical structure.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14, 85-105.
- O'Loughlin, S. (1989). Use of repertory grids to assess understanding between partners in marital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2, 143-147.
- Parker, A. (1981). The meaning of attempted suicide to young parasuicides: a repertory gri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9, 306-312.
- Polanyi, M. (2001) 개인적 지식 [*Personal Knowledge: toward a post-critical philosophy*]. (포재명과 김봉미 역). 서울: 아카넷. (원전은 1958년에 출판).
- Raskin, J. D. (2002). Constructivism in psychology: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radical constructivism, and social constructionism. *American Communication Journal*, 5(3).
- Ryle, A. (1985). 'The dyad grid in psychotherapy research' in N. Beail(ed.), *Repertory Grid Technique and Personal Constructs: Applications in Clinical and Educational Settings*, Croom Helm; London.
- Salla, M., Feixas, G., Ballén, C, Muñoz, D & Compañ, V. (2015). The Couple's Grid: A tool for assessing interpersonal constructions in couples.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8(1), 53-66.
- Saúl, L. A., López-González, M. A., Moreno-Pulido, A., Corbella, S., Compañ, V., & Feixas, G. (2012). Bibliometric review of the repertory grid technique: 1998-2007.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5(2), 112-131.
- Sexton, T. L. (1997). Constructivist thinking within

- the history of ideas: The challenge of a new paradigm. In Sexton & Griffin(Ed), *Constructivist thinking in counseling practice, research, and training*, (pp. 3~18).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heehan, M. J. (1985). A personal construct study of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8, 119-128.
- Soldevilla, J. M., Feixas, G., Varlotta, N., & Cirici R. (2014).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 systems of women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7(2), 105-119.
- Viney, L. L. (1988). Which Data-Collection Methods are Appropriate for A Constructive Psych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1(2), 191-203.
- Viney, L. L. (1998). Should we use personal construct therapy? A paradigm for outcomes evaluat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5(3), 366.
- von Glaserfeld, E. (1995a). *Radical Constructivism: A way of knowing and learning*. London: The Falmer Press.
- Watson, J. P. (1970). A repertory Grid Method of studying group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17, 309-318.
- Winter, D. A. (1982). Construct relationships, psychological disorder and therapeutic chang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55(3), 257-270.
- Winter, D. A. (1992).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in clinical practice: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Routledge.
- Winter, D. A. (2003). Repertory grid technique as a psychotherapy research measure. *Psychotherapy Research*, 13(1), 25-42.
- Yorke, L., & Dallos, R. (2015).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and repertory grid exploration of anger in young offenders. *Journal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28(2), 126-138.

1차원고접수 : 2018. 04. 03.

수정원고접수 : 2018. 06. 18.

최종게재결정 : 2018. 07. 25.

## An Application of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Research Methodology in Psychology Research: Repertory Grid Technique

Sohee Kim

Kumlan Yu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George Kelly's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PCP), a subset of constructivist psychology, and the Repertory Grid Technique(Repgrid). Then, we intended to discuss the applications and availability, limitations of Repgrid. In terms of PCP, humans construe the meaning of life by forming, testing, and revising their own personal construct system of their world. Each individual creates constructs of how the world is construed, and applies it to reality. This theory provides a useful picture of a person because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person's personality, the inner world, and the meaning of the individual. Repgrid technique is a structured interview technique, assessment tool, psychotherapeutic technique, and research methodology that is developed to explore the personal construct system. This technique provides idiosyncratic information in the content of construct system, and quantifiable measures of construct system in the cognitive structure. Repgrid technique is performed in four steps: Design phase - Administration Phase - Mathematical Analysis - Interpretation Phase. To assist in practical understanding, we described the definitions and examples of elements, constructs and rating, and used a case studied by Leach et al (2001). For analysis of the grid data, we conducted OpenRepGrid. Then, we represented and described the measurements and indices produced in OpenRepGrid with tables and figures. Finally, we discussed the availability and limitations of Repgrid technique.

*Key words* : *Repertory Grid Technique,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Constructivist Psychology, OpenRepGri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